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임치균*

<차례>

1. 서론
2.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
3. 각 혼인의 실상
4. <소현성록>의 혼인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소현성록〉은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본고는 작품 속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혼인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하여 살폈다. 〈소현성록〉의 작가는 남성 개인이 여인을 만나 혼인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가문끼리 정혼하는 가문혼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회혼과 여성 중심의 개인혼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혼과 여성 개인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여성의 죽음이나 출거 등으로 혼인의 결말을 맺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혼인에 대해서는 그 서술 순서도 함께 함으로써 그 혼인에서 더 이상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로한 혼인은 결국 같은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다양한 만남의 방식이 제기되고, 작품 전개에 따라 그 만남에서의 내용도 다채로우며 항상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는 개인혼과는 대조적이다.

작품에서는 혼인의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맨 처음 소현성의 혼인에는 가문혼, 개인+가문 결합혼, 사회혼을 설정한 후 점차 가문혼은 관심에서 제외하여 나간다. 그리고는 개인+가문 결합혼과 개인+사회 결합혼을 긍정과 부정의 시각으로 양분하여 서술한 후, 운명의

*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우에 가서 다시 한번 가문혼의 문제를 제기한 후 극단적인 개인혼을 그림으로써 작가 의식의 일단을 마무리하고 있다.

〈소현성록〉은 개인혼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철저하게 부정한 작품이다. 개인혼을 염두에 둔 것은 당시 남성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면,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부정한 것은 당대 남성들의 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소현성록>, 개인혼, 가문혼, 사회혼, 남성의 소망, 남성 의식의 투영

1. 서론

〈소현성록〉은 고전소설사의 전개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편소설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소현성록〉은 조선조 대장편소설 가운데 학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크게는 작품의 이본 대비는 물론 향유 방식과 파생작에 대해서도 이미 천착이 되었고¹⁾, 작계는 작품에 드러난 여성인물과 그 일상이 갖는 의미²⁾, 남성인물, 주변 인물(석파), 그리고 소재(공주혼) 등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되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소현성록〉에 대하여 뭔가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 독창적인 논지를 전개하여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 1) 임치근,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화연구』 4, 2003.
- 2)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1999.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 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1998.
- 3) 이러한 것들은 『한국고전연구』 12, 2005에 실린 〈소현성록〉 연작 기획특집 I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소현성록>을 살펴보면, 작품 전체에서 ‘혼인’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소현성록>에서는 ‘혼인’ 문제를 가장 관심 있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럼에도 <소현성록>에 드러난 ‘혼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혼인으로 야기되는 갈등과 그 해결 양상에는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혼인 그 자체에 대하여서는 주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혼인 순서 및 그 인물 특성의 정형성에 대하여 표면적인 지적을 한 후⁴⁾, 최근 박영희에 의하여 <소현성록>에서 다룬 ‘혼인’ 가운데 일부분인 ‘공주혼’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일단이 시작되었을 뿐이다.⁵⁾

물론 <소현성록>의 혼인에는 정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필자는 <소현성록>이 여러 사람의 혼인을 다루면서 왜 그 형태나 인물 구성에서 정형성을 띠었는지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장편소설 발생 초기에 보일 수 있는 미숙함, 즉 작품 분량을 새로운 내용으로 늘일 수 없어서 앞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작가의 미숙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이유로 그 의미에 대하여는 깊이 탐구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혼인’ 이외의 내용에서는 다양함은 물론 흥미로움도 두루 갖추고 있는 <소현성록>이 유독 혼인에 관하여서만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고 느끼면서 사고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이 정형성을 띤 혼인에는 작가가 강조하여 내보이려고 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작성해본 것이다. 대상 자료는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24, 25에 실려 있는 박순호본 <소현성록>⁶⁾이다.

4) 임치균, 앞 논문.

5) 박영희, 앞 논문.

2.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에 대하여 살피기 전에 조선시대 사대부에서 있을 수 있는 ‘혼인’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사대부의 혼인은 중매를 거쳐 주혼자의 결정 아래 엄격한 원칙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의 ‘혼인’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이는 혼인이 가진 가문의 결합이라는 측면을 중시한 의미를 지닌다.⁷⁾ 가문의 의지가 서로 능동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혼인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양가의 주혼자(가장)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편의상 「가문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사자나 가문의 의지가 약해지는 대신 공적인 요구가 강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왕실과의 혼인’ 또는 ‘왕실의 요구에 의한 혼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부마가 되거나 태자비 또는 왕비가 되는 경우와 왕실이 주선하는 여인 또는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공식적인 ‘국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는 상황에 따라 왕실이 혼인에 끼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종종 후자의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⁸⁾ 이를 편의상 「사회혼」이라고 할 수

6)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24, 25, 오성사, 1986.

7)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128쪽.

8) 命閔顯許婚於奉常寺尹李携之女。(세종 9년 2월 19일)

己未/初故慶安君夫人許氏, 以諺書呈單于宗簿寺, 以爲:自上軫念次子焜之年長未娶, 特下婚娶之教, 得聞積城居洪九叙家有女子, 送人求婚, 則稱煩不許. 凡宗室婚姻, 例有自望呈單, 若謀避, 移文司憲府論啓之規, 斯速入啓處置云. 宗簿寺具以事聞, 上曰:「仁廟朝仁城君子女婚娶時, 有求婚而不許者, 告官處置之教矣. 當初處分, 非謂有罪, 專出保全之計, 特命婚娶, 亦非偶然, 而托以年稚多病, 終始不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개인’이 결합하는 혼인이 있을 수 있다. 한 남자 또는 한 여자가 먼저 한 여자 또는 한 남자를 보고 난 후 그 사람과 자유롭게 인연을 맺는 일이다. 물론 ‘불고이취(不告而娶)’가 가장 큰 불효였던 조선시대의 특성상 이러한 혼인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주혼자 없이 혼인하였을 경우에는 ‘自媒和姦罪’로 처벌을 받았을 정도이다.⁹⁾ 그러나 소설 작품에서는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라고 하여도 이러한 혼인이 전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사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소설에서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혼인이 당대인들에게는 의미하는 그 무엇이(소망)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편의상 「개인혼」¹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들 혼인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으나, 서로 결합되어 드러

許, 尤爲駭異. 九叙從重推考, 使卽行婚, 而又有稱頤, 則更呈本寺, 從重處置.」至是, 宗簿寺又以洪家終不許婚之意更啓, 命拿推九叙 (숙종 10년 10월 29일)

9)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20-21쪽.

10) “자유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가문, 사회와 대응되는 용어인 개인을 차용한 것이다. 학술발표회 당시 토론자였던 백순철 선생님은 과연 개인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할 때는 가문혼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개인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라는 지적도 하였다. 즉 개인으로서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개인혼’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미이다. 이는 정곡을 찌른 것이었다. 그러나 가문혼을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그 안에는 분명 ‘개인의 의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개인의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까지를 ‘개인혼’으로 보고자 한다. 좋은 질의를 해준 백순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1) 백순철 선생님은 자유혼, 중매혼, 늑혼 등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굳이 ‘가문혼’, ‘사회혼’, ‘개인혼’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 다만 연구자는 자유혼, 중매혼, 늑혼은 혼인이 이루어진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인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를 포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용어를 제안해본 것이다.

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끼리 만났다가 결국 주혼자의 도움으로 가문이 허용하는 경우, 이는 개인혼과 가문혼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혼 또는 가문혼을 피하다가 여의치 않자 사회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소현성록>에는 위에서 거론한 혼인의 모습 가운데, 가문혼을 피하다가 여의치 않아 사회혼을 이용하는 경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혼을 주선하는 주체가 가장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그 속에는 가문혼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 우선 <소현성록>에서 혼인과 관련된 인물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1) 소현성

- ① 화현의 청혼에 모부인 양씨가 응낙하여 화씨와 혼인함.
- ② 석파의 친거로 직접 보게 된 석 소저와 혼인하는데, 석 소저의 부친인 석 참정이 현성에게 직접 청혼하나 현성이 자단하지 못하자 칠왕, 팔왕이 주선한 것임.
- ③ 친질인 후궁 여구미를 통하여 황제를 움직인 추밀사 여운의 제 2녀와 혼인함.

2) 소운경

- ① 위공이 운경을 보고 혼담을 내자 소현성과 양부인이 허혼하였으나 위부의 문제로 헤어졌다가 남장한 위 부인을 만나보고 여자임을 눈치 채 후 본부에 알려 마침내 혼인함.

3) 소운성

- ① 형부의 미소녀를 보고 석 참정에게 주선을 부탁하여 혼인함.
- ② 운성을 보고 금방울을 던진 명현 공주와 황제의 힘 때문에 혼인함.

4) 소운명

- ① 태상경 임수보가 운명을 보고 사랑하여 청혼하자 현성이 허락하여 혼인함.

- ② 미인인 이원노의 딸 이씨를 만나 不告而娶함.
- ③ 운명을 사모하여, 정 대비를 통하여 황제를 움직인 정 참정의 딸과 혼인함.

5) 김현(사위)

- ① 최 소저와 혼인함.
- ② 수빙 소저(현성의 4녀, 석 부인 차녀)를 보고 상사병에 걸린 후 현성에게 허락받아 혼인을 함.

여기에서 소현성, 소운명 ①은 가문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소현성의 ②, 소운경의 ①, 소운성의 ①, 김현의 ②는 개인혼과 가문혼이 얽힌 것이다. 그리고 소현성의 ③은 사회혼이며, 소운성의 ②와 소운명의 ③은 개인혼과 사회혼이 결합된 형태이다. 그리고 소운명의 ②는 유일하게 드러나는 개인혼이다.¹²⁾ <소현성록>에서는 개인혼과 가문혼이 결합된 형태가 가장 많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작가의 긍정적인 시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인혼과 사회혼이 결합된 경우, 여성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3. 각 혼인의 실상

1) 가문혼

가문혼은 당대에 가장 자연스러운 혼인 형태이다. <소현성록>에 드러나고 있는 가문혼은 매우 정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12) 김현 ①의 경우는 혼인의 구체적 과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겠다. 또한 ②도 개인혼이기는 하지만 소현성이 이 소저의 부친 이각노를 알고 애석해하는 것을 볼 때, 가문의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① 신부 집의 부모가 소부에 청혼한다.
- ② 소부에서 허혼한다.
- ③ 택일하여 혼인을 한다.
- ④ 신부에게 문제가 있다.
- ⑤ 문제가 개선되어 화합한다.

문제는 ④이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반면 ⑤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다. 그렇다면 <소현성록>은 가문혼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입장 쪽에 무게를 둔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소 모자란다는 것이다.

화공이 소왈 상공이 밋지 아니하시거던 스람을 보니여 =아을 보쇼셔 양 공이 또흔 웃고 즈운산의 괴별하니 양 부인이 또흔 화평장의 어진 지상인 줄 알고 허흔하니 턱일하여 성에홀시 괴구의 거록힘과 부=의 화려힘이 비괴 더 업더라 다만 신부의 용모가 직스만 못힘을 혼히더니¹³⁾

인용문은, 가문의 뛰어난(장인 될 위인의 어집)만 보고 혼인을 하다 보니 다소 신부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화 부인은 작품 속에서 성품 상 다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곧 회귀하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운명의 임 부인은 성품은 뛰어나나 용모 상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3) <소현성록> 권1(총서 24권), 160쪽. 이 쪽수는 박순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에 있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신부의 늦밧치 누르고 거무며 키가 =장 적고 허리 퍼지며 알고 베즈 형용
이 고이할 분 아니라 얼굴의 큰 흑이 셋시나 좌우로 드리외시니 가히 무염
의 지난 박식이라¹⁴⁾

이는 당사자가 직접 보지 않고 하는 혼인이 가지는 문제점을 적시한
것이다. 결국 <소현성록>은 당시의 혼인 형태였던 가문혼에 대하여 소극
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가문혼의 과정을 정형화하는 데에도 일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혼과 가문혼의 결합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개인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는 혼인에 대하여 긍
정적인 시선을 보내게 된다. <소현성록>에서는 개인혼과 가문혼이 얽힌
형태에서 그 일단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 주인공들은 모두 혼인
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 여성들을 만나 보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¹⁵⁾.

(소경이 석파를—필자 주) 썩라 방중의 이르니 엇더흔 여즈 방중의 안저
다가 깃이 드러움을 보고 몸을 움지으며 벽을 헹헹난지라 사랑이 눈을 드러
잠간 보오니 일디 미인이 안디 갖튼 머리를 지우고 구름 갖튼 귀밧슬 다사
렸고 ——(중략)—— 옥타정연호여 보던 비 처음이다 혼변 보오미 마음이 놀
니여 모로고 올를 뉘웃쳐 연망이 쇼미로 낮질 가리고 도로 거러 방문 박기
나오나¹⁶⁾

14) <소현성록> 권10(총서 25권), 4쪽.

15) 물론 그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16) <소현성록> 권2, 222-223쪽.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소현성록>에서 남성 주인공들이 여성들을 처음 보았을 때의 서술은 위 인용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현성록>에서는 각각의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부인들 가운데, 남성들이 만나 보고 혼인한 이들 여성들을 가장 현숙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을 가문혼의 형태로 귀결시키고 있다. 소현성의 경우는 칠왕과 팔왕이 주혼자가 되고, 소운명의 경우는 애초에 있었던 가문혼을 회복하는 형태가 된다. 소운성은 석참정이 주혼자가 되고, 김현은 소현성이 주혼자가 된다. 이는 일종의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인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형태로 당시의 혼인 형태인 가문혼을 이용한 것이다. <소현성록>에서 진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혼인할 때 당사자끼리 한번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당시 혼인을 앞둔 사대부 남성들의 소망이었을 수도 있다.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혼인을 앞두고 무리(?)를 해서라도 정경패를 보러 가는 것도 이러한 의식의 표출이 아니었을까 한다.

어쨌든 만남을 긍정하는 작가의 마음은 결국 작품에서 운명의 개인혼을 설정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운명은 아버지인 소현성까지 속이고는 이원노의 딸을 만나 취한다. 결국 不告而婚한 것이 들통 나 杖責 30대를 맞는 지경에 이르지만 운명은 원하는 혼인을 하게 된다. 작가는 여기서도 이 부인을 운명의 세 처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당사자가 만나보고 좋은 사람이 진정한 배필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개인혼과 가문혼의 결합의 경우에도, 다른 혼인들과 마찬가지로 정형성을 띠고는 있다. 여성이 가장 현숙한 인물로 설정되는 점, 혼인 후 다른 부인에 의하여 고난을 겪는 점 등이 그렇다. 가장 현숙한 여인으로 설정

된 것은 당사자가 만나 본 후에 하는 혼인이 갖는 긍정적인 면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들이 겪는 고난은 그만큼 이러한 혼인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성에도 불구하고 <소현성록>에서는 다른 혼인의 양상과는 달리 개인혼과 가문혼의 결합의 순서나 내용만큼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문의 완성 과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혼인의 내용은 크게 장자 계열인 현성, 운경과 기타 계열인 운성과 운명¹⁷⁾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전자에서는 여성을 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가 현저히 약화되어 드러난다. 소현성은 그저 석과의 계교에 따라 석 소저를 보았을 뿐이고,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스스로 자단하지 않고 있다. 소운경은 먼저 가문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남복을 입은 위 소저를 보고는 역시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정대한 군자의 모습을 보이며 희학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가문의 뜻에 따라 혼인을 이룬다. 이 것은 가문혼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는 결합이다. <소현성록>에서 이 부분까지는 가문의 확립기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인군자'의 모습이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 전개의 과정에 맞춰 '여성을 만나보는' 것은 유지하면서도 남성을 상황에 맞는 인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현성과 운경으로 이어지는 가장권이 확립이 된 후에 이루어진 운성의 경우는 달라진다. 운성은 형 소저를 보고는 석 참정에게 혼인 주선을 부탁하는 등 적극적이다. 그리고는 소현성과 소운경과는 달리 자신의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개인혼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게 중

17) 운명의 경우는 개인혼과 가문혼의 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내용이 점차 개인혼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것을 고려하여 일단 함께 다루겠다.

심의 이동은 결국 운명의 개인혼을 이끄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상적인 혼인을 통한 가정 또는 가문의 완성’은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 소망이었을 것이다. <소현성록> 역시 궁극적으로 가문의 완성과 확고한 사회적 입지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작품임을 고려할 때, 작품 속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혼인 형태에 대하여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은 남성 중심의 개인혼을 가장 이상적인 혼인 형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문혼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문의 확립과 번창이라는 도식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인혼과 사회혼의 결합

<소현성록>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혼인의 과정은 정형적이다.

- ① 한 여성이 소부의 한 남성을 보고 마음이 끌린다.
- ② 궁중의 인물을 이용하여 황제의 혼인 진지를 이끌어 낸다.
- ③ 소부에서 반대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 ④ 혼인 후, 개인혼과 가문혼 결합으로 들어 온 현숙한 여인을 포함한다.
- ⑤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소현성록>에서 개인혼과 사회혼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여성들이 남성 인물을 보고 반한 후, 그 남성과 인연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 여성들은 개인혼을 이루기 위하여 사회혼을 이용한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공주 탄식 왈 신이 폐하와 낭=의 사랑흐시를 입스와 옥누금궤의 부귀 일

신의 죽호오니 무어서 부족호오리잇가마는 임의로 못호는 거슨 비필이라 만일 불헿호여 용속녹=죽을 만닐진디 천총이 초기 갖고 부귀 헌신 갓스오리 니 차인(운성 - 필자 주)을 보오미 옥인괴남즈요 풍유디장부오니 당=이 흥금 수막 가온디 아름다운 손이 되오면 엇지 녀즈의 일성이 췌치 안이릿가 폐하는 차인으로 부마을 정호시면 헿심일ㄱ 호느이다¹⁸⁾

명현공주는 운성을 보고 반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혼인을 이룰 수 없기에 황제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는 운명과 혼인하는 정 소저도 마찬가지로이다.

문제는 ④와 ⑤이다. 이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다. 결국 <소현성록>에서는 이러한 혼인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에 의한 개인혼은 물론 권위나 힘에 의한 강요된 사회혼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혼과 관련된 여성을 ‘탕녀’ 또는 ‘투기하는 여자’ 등과 같이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하는 것과 사회혼을 통하여 혼인은 하였지만 결국은 여성이 죽거나 黜去당하면서 파탄에 이르는 결말을 구성하는 것으로 표상화 되고 있다. 특히 사회혼에 비판적인 것은 그 이면에 여성이 중심이 되었다는 데 있다. <소현성록>의 명현공주와는 달리 <임씨삼대록>의 효장공주는 사회혼을 하였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이 남성을 보고 중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여성 중심의 혼인이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는 그저 여성은 남성에 의하여 선택되고 뽑혀야 하는 존재이지 여성들이 남성을 자의적으로 택할 수는 없다는 의식에 다름 아니다. 이는 혼인과 관련된 모든 면이 남성본위적으로 되어 있던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의식이었을 것이다.

18) <소현성록> 권6(총서 24), 481쪽.

소현성의 ③은 사회혼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여 소저가 소현성을 먼저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혼인의 방법으로 '사회혼'을 택한다. '사회혼'이라는 것은 대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혼인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부의 여운은 소현성을 사위로 얻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친질인 후궁 여구미를 통하여 황제의 늑혼을 이끌어 낸 것이다. 여기서도 작가는 여 소저가 성격에 문제가 있는 여성이며 그래서 마침내 소부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사람 됨됨이를 잘 모르면서 혼인을 강요하는 '사회혼'에 대하여서도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 이미 남성이 보고 판단한 후 혼인하는 것을 긍정하는 작품 <소현성록>에는 이는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다.

4. <소현성록>의 혼인이 가지는 특징과 의미

이상에서 살펴 본 <소현성록>에 드러나고 있는 혼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현성록>에서는 작가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혼인의 형태에 대하여서는 정형화를 통하여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부정적인 혼인은 몇 번이 반복되어도 역시 같은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호의적인 혼인에 대하여서는 가문의 완성 과정에 따라 그 과정이나 내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만남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그려냄으로써 의식의 일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작가는 소부에서 일

어나는 혼인에 있어서 그 배치를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작가는 맨 처음 소현성의 혼인에는 가문혼, 개인+가문 결합혼, 사회혼을 설정한 후 점차 가문혼은 관심에서 제외하여 나간다. 그리고는 개인+가문 결합혼과 개인+사회 결합혼을 긍정과 부정의 시각으로 양분하여 서술한 후, 운명의 경우에 가서 다시 한번 가문혼의 문제를 제기한 후 극단적인 개인혼을 그림으로써 의식의 일단을 마무리하고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 소운성, 소운명에게는 가문혼, 개인혼 중심의 혼인, 사회혼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혼의 당사자가 개인혼(가문혼 결합)의 대상자를 포함하고 음해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결국 사회혼이 작가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인혼을 방해하는 것이다. 사회혼은 황제로 대변되는 기존 권위의 막강한 힘이다. 그에 반하여 가문혼을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개인혼 형태의 이상적인 혼인은 소망의 발로일 뿐이다. 사회혼이 개인혼을 방해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사회 통념의 완강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는 여전히 개인의 만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혼에 대한 작가의 반발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여성의 개인혼을 결합시킴으로써 아울러 비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선조 대장편소설 가운데에서 여성의 개인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작품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혼인 결말의 파탄성'이다. 다른 작품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이 결국은 회과하여 함께 삶을 지내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소현성록>은 이러한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혼인에 관련된 여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출거 당한다. '가문혼'으로 들어온 여성이 그나마 회과하여 소부의 일원이 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로써, <소현성록>은 개인혼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철저하게 부정한 작품임이 분명해진다. 개인혼을 염두에 둔 것은 당시 남성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면,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부정한 것은 당대 남성들의 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현성록>은 이러한 모든 것을 남성의 시각에서만 옹호하고 있다. 결국 <소현성록>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작품인 것이다. 작품 전체도 요약하자면 양 부인으로 대표되는 단순한 집안의 여성 어른인 어머니가 점차 사회와 가문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는 가부장 남성 소현성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설정의 작품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종법 제도가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작품을 읽은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가장권 확립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소현성록>은 가문소설이다. 가문소설은 가정(가문) 내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 관계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특징이 있다. <소현성록>은 가장이 부재한 경우에, 현명한 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의 압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황제가 소현성에게 여 소저를 녹훈하였을 때, 양부인은 ‘왜 거절하지 못했느냐’며 아들을 책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만다. 반면 소현성은 황제가 명현 공주를 운성의 배필로 정하였을 때 심하게 반발한다. 반대하는 표를 두세 번 올리고 옥에 갇히기까지 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남성 가부장의 확고한 위치를 강조한 것이다. 물론, <소현성록>에 여성 취향적인 일상사와 대화가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다.¹⁹⁾ 그런데, 필자에게는 이것이 현대의 糖衣錠과

같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마치 여성들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진정 여성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서, 결면을 여성이 좋아할 만한 어떤 것으로 포장하였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현성록>은 남성적 시각을 중심에 견지하고 있는 작품이고, 이러한 남성중심적 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소현성록>에 드러나고 있는 다양한 혼인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소현성록>의 작가는 남성 개인이 여인을 만나 혼인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 가문끼리 정혼하는 가문혼에 대하여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회혼과 여성 중심의 개인혼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혼인이 불가능한 조선시대의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혼을, 당시의 보편적인 것이었던 가문혼과 결합시켜 완성되게 함으로써 타협적인 모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혼인은 정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그 혼인에서 더 이상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번 해봐도 결국 같은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호의적인 혼인에서는 다양한 만남의 방식이 제기되고, 작품 전개에 따라 그 만남에서의 태도도 다채롭게 묘사되며 항상 긍정적인 결말을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에서는 혼인의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의식을 효과적으

19) 정창권, 전계논문.

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맨 처음 소현성의 혼인에는 가문혼, 개인+가문 결합혼, 사회혼을 설정한 후 점차 가문혼은 관심에서 제외하여 나간다. 그리고는 개인+가문 결합혼과 개인+사회 결합혼을 긍정과 부정의 시각으로 양분하여 서술한 후, 운명의 경우에 가서 다시 한번 가문혼의 문제를 제기한 후 극단적인 개인혼을 그림으로써 작가 의식의 일단을 마무리하고 있다.

<소현성록>은 개인혼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철저하게 부정한 작품이다. 개인혼을 염두에 둔 것은 당시 남성들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면, 여성 개인혼과 사회혼을 부정한 것은 당대 남성들의 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현성록>은 이러한 모든 것을 남성의 시각에서만 옹호하고 있다. 결국 <소현성록>은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작품인 것이다.

대장편소설에서 혼인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고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혼인을 다룰 수 있는 틀을 제시해본 것이다. 이를 다른 작품에 적용하였을 때, 그 양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게 되면, '혼인'에 관련된 더욱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속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월촌문헌연구소 편, 『한글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 24, 25, 오성사, 1986.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公主婚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2005.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1999.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2005.

이순홍, 『한국전통혼인고』, 학연문화사, 1992.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2005.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4, 1998.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화연구』 4, 2003.

K C I

〈蘇賢聖泉〉的 婚姻的 樣相和 意味

林治均

〈蘇賢聖泉〉涉及到婚姻的方面是重要的部分。本稿就作品中出現的多种多样婚姻形態及意義進行了考察。〈蘇賢聖泉〉的作者認為男性自己與女子相遇并結合是最為理想的婚姻形態，而堅持批判由家門做主訂婚的家門婚姻，同時對於社會婚以女性為中心個人婚姻也是持非常否定的態度。這種否定通過以女性的死和出走作為婚姻的結局而充分表現出來。再有對這樣的婚姻的敘述順序也使之大体相同，意在表達這樣的婚姻是完全不可能的結論。這就和開始時多樣的相遇，隨着作品故事情節的展開，相遇的內容也更加多彩，最后又通常是幸福結局的個人婚形成對照。

作品通過對婚姻的合理安排，使這種意識表現的很充分。即最開始設定蘇賢成的婚姻為家門婚，個人婚與家門婚的結合婚姻，社會婚之后，漸漸不再關注家門婚，而對個人與家門結合的婚姻和個人與社會結合的婚姻運用肯定和否定兩種視覺來敘述，后來隨着命運的變化，再次提到家門婚的問題，最后描寫極端的個人婚，由此將作家的意識告一段落。

〈蘇賢聖泉〉是提倡個人婚，徹底否定女性個人婚和社會婚的作品。如果說對個人婚的肯定是當時男性願望的反映的話，那么對女性個人婚和社會婚的否定則可以說是當時男性意識的投影。

主題語 〈蘇賢成泉〉，個人婚，家門婚，社會婚，男性願望，男性意識的投影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